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 2014년 업무 보고,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11대 전략 중 하나로 선정(2014.2.11.)

-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4대 정책 목표와 11대 전략을 보고,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11대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함.
- 청년층 취업 문제의 요인 중 하나가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진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혁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금년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함.
 - 학교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 → 先취업 後학습 확산을 통한 조기 취업지원, 산업 수요 맞춤형·고품질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
- 인재 양성의 세 주체(기업, 학교, 산업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일·학습병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기업 주도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함.
 - 금년도에 1천 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확대하고 2017년까지 1만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
 - 병행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현장 훈련 프로그램, 교재 개발, 트레이너 운영 등의 인프라와 소요 훈련비 지원
 - 제조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등의 창조경제 분야로 대상 확대, 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문화체육관광부 협업)

- [학교] 교실과 기업 현장을 밀접히 연계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직업학교를 육성하도록 함(교육부 협업).
- NCS 적용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상의 장기 기업현장 연수 제공(금년도 500명), 일학습병행 기업과 맞춤형 현장실습 연계
- 도심형·산업단지형 캠퍼스 및 실습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 폴리텍대학 시범 운영 후 전문대와 특성화고로 확대할 예정
- 이 외에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조기 직업체험 지원을 추진(교육부 협업)하고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하는 일반계고 학생 대상의 직업교육을 지원(교육부 협업)하기로 함.
- [산업계]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대표성과 역량을 갖춘 산업별 단체를 육성(금년도 10개)
- 산업별 단체에 교육훈련 및 자격 설계, 수료생 평가 등을 위탁. 사업비 및 전담조직 운영비(연 2억 원)와 인프라(연 최대 20억 원) 등을 지원

□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개선 방안 마련 및 품질 향상 특화 과정 시범 사업 실시(2014.2.4.)

-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훈련 성과가 높은 우수 훈련 기관을 육성·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함.
- 우수 훈련 기관 육성 및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관 역량 평가와 취업률 등의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훈련 과정 심사 우대, 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훈련비 지원을 우대
 -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경우, 훈련 비용에 추가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한 훈련 시설 및 장비 대부 이지율을 인하(4%→1%)하고 훈련비 선급금 지급 시 부담을 완화

-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직무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훈련 심사 및 평가 체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 적용하고 채용 연계형 훈련 과정도 적극 확대할 계획
- 취업 취약계층의 훈련 확대 및 지원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고용센터를 통한 훈련 참여와 함께 자치 단체 일자리센터, 취약계층 직업훈련상담 민간 위탁 기관, 새일센터, 하나센터 등을 통해서도 취약계층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
 - 훈련 과정에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실적이 있는 훈련 기관은 차기 선정 심사 시 우대하고 취약계층 훈련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
 - 취업을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훈련 참여자와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훈련 기관이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
-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승인을 받은 기관 중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 특화 과정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시범 사업을 통해 추진할 특화 훈련 과정은 양질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약정 기업으로 취업하는 채용 연계형 과정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의 취업 연계 과정, NCS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 훈련생 관리 및 교육, 평가 방법, 취업 지원 및 우수 훈련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과정 등임.

□ 고용노동부, 취업률 상위 100개 훈련 과정 공개(2014.1.27.)

- 고용노동부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중 취업률 상위 100개의 과정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
- 2013년 상반기(1.1.~6.30.)에 종료된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수료 인원 10인 이상의 과정 중 취업률이 높은 과정을 공개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이 100%인 과정이 38개, 90% 이상인 과정이 145개, 75% 이상인 과정이 56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률 산정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인원 / 수료 인원]×100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 취업률 75% 이상인 과정 명단은 HRD-net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향후에도 취업률이 높은 훈련 과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 훈련 과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HRD-net(www.hrd.go.kr)의 “구직자 훈련과정”에서 검색 가능.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등 훈련 과정별 취업률 및 훈련 기관 평가 등급, 훈련 시작일, 훈련 기간, 수강료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계 주도의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산업별 단체(SC) 공개 모집 (2014.2.14.)**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산업별 단체(SC)를 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함.
- 산업별 단체(SC)의 수행 기능
 - 참여 기업 발굴 및 접수
 - : 자체 인력 양성 의지가 강한 우수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의 우수 기업 발굴, 공단의 지역 일·학습지원센터와 함께 참여 기업의 접수 창구 역할 담당
 - 기업별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참여
 - : 또한, 배출된 학습 근로자가 개별 기업의 특유 기술(firm specific skill)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의 공통 직무 능력(industry specific skill)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현장 외 훈련(Off-JT) 제공

- 일·학습병행제의 “공동훈련센터”로 참여.
 - *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는 산업별 단체는 학습 근로자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일·학습병행제 자격제도”에 의한 학습 근로자 평가에도 참여하는 등 산업인력공단 과 함께 「일·학습병행제」 전반을 이끌어 나갈 예정
 -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기준 및 수료자 평가 도구 개발 지원 참여
 - 직종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기준 개발 및 프로그램 이수자 평가(검정) 도구 개발 과정에 참여
 -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평가 지원
 - 해당 분야의 병행제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부여를 위한 검정(최종 평가) 기능 수행 등
 - 일·학습병행제 전담 조직 운영
 - 기업 발굴·선발팀, 인증·평가팀, 공동훈련센터 운영팀 등으로 구성(전담 본부 운영 권고안)
 - 성과 결과 보고서 제출
 - 재정 지원 내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외에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기관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

수행 기능	운영비	사업 규모(최대)	비고
참여 기업 발굴 및 접수	5천만 원	-	심사를 통해 기능 수행 가능 여부 판단 후 결정
프로그램 개발 지원	5천만 원	기업 당 9백만 원 이내	
현장 외 훈련(Off_JT) 제공	5천만 원	소요 훈련비	
인증 기준 및 평가 도구 개발 지원	5천만 원	직종별 8천만 원 이내	
학습근로자 평가 지원	-	-	
전담 조직 운영	-	-	필수사항 부적격 시 선발 불가

□ 고용노동부, 장기 직업훈련생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증액(2014.2.19.)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 훈련생이 장기간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및 대상 훈련을 확대하기로 함.
 - 올해 2월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
 - 대부 신청이 가능한 훈련도 인터넷 원격 훈련 참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 시설에서 제공되는 훈련으로 확대
 - 2013년의 경우 사업비가 190억 원, 수혜 인원이 9,714명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사업비를 3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약 1만 5천명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계획임.

□ 여성가족부, 현장 연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4.1.21.)

-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지정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1월 21일부터 시행
 - 현장 연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현장 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함.
 -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새일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을 폐지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여성가족부는 금년에 유형별(경력 개발형, 자립 지원형, 농촌형 등)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현장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 및 전문 기술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

Ⅱ. 직업능력개발 통계

◆ 2012년~2013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1. 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

□ 만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연간 1.5%, 주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사설학원 순으로 나타남.

○ 인적 속성별 참여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1.4%)보다 여성(1.6%)이, 연령별로는 15~29세(2.5%)와 30대(2.0%)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2.5%, 대졸 이상 2.3%, 고졸 1.5%, 중졸 이하 0.4%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주된 교육훈련기관(1순위)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25.1%), 사설학원(25.0%),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21.4%) 순으로 나타남.

○ 인적 속성별 주된 교육훈련기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남성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28.1%)가 주된 기관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사설학원(25.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평생교육시설(6.0%)이 주된 기관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5~29세의 청년층의 경우 사설학원(42.4%)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16.4%)의 비중이 높음.
- 중졸 이하의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34.1%)이 주된 교육훈련기관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실업자의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37.1%), 사설학원(30.6%),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19.5%)이 주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41.1%),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19.1%), 사설학원(13.5%) 순

표 1. 15세 이상 인구의 인적 속성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과 주요 교육훈련기관(1순위)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전체		1.5	21.4	15.5	4.3	4.2	4.0	25.0	25.1	0.5
성	남자	1.4	22.0	15.2	4.0	4.4	1.6	23.9	28.1	0.7
	여자	1.6	20.8	15.8	4.6	4.0	6.0	25.9	22.5	0.4
연령	15~29세	2.5	15.7	16.4	2.6	5.4	1.1	42.4	16.2	0.3
	30대	2.0	22.1	15.7	4.1	4.4	5.3	18.1	29.6	0.8
	40대	1.4	22.2	15.3	6.6	3.2	7.8	14.5	29.6	0.7
	50대	1.0	28.7	14.9	4.1	2.6	3.4	10.4	35.3	0.6
	60세 이상	0.4	37.4	10.8	9.8	2.9	6.0	5.1	27.7	0.4
학력	중졸 이하	0.4	34.1	14.2	3.4	0.3	1.6	17.5	28.3	0.5
	고졸	1.5	22.6	17.2	3.8	3.9	3.3	25.6	23.1	0.5
	전문대졸	2.5	21.0	15.9	3.6	3.9	4.5	23.7	26.5	0.9
	대졸 이상	2.3	17.6	13.8	5.3	5.6	5.0	26.5	25.8	0.4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1.4	19.1	13.0	5.2	3.9	3.4	13.5	41.1	0.7
	실업자	7.9	37.1	19.5	3.7	2.9	0.9	30.6	4.9	0.4
	비경활	1.3	20.3	18.5	3.0	5.1	6.0	42.9	3.9	0.3

주: 1) 2012.4.21일부터 2013.4.20.일까지 1년간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임.
 2)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3)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수치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가운데 해당 기관을 1순위로 응답한 이들의 비중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지역별 취업을 위한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인천이 3.0%로 가장 높고, 충남이 0.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인천 3.0%, 광주 2.4%, 대전 1.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주된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비중이 4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 서울, 제주의 경우 취업 목적의 주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비중이 각각 44.3%, 34.2%, 30.8%으로 높게 나타남.
 - 충남, 충북, 강원외의 경우 사설학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각각 39.6%, 34.2%, 32.8%임.
 - 대전, 부산, 충북의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의 비중이 각각 37.2%, 27.5%, 25.8%로 높게 나타남.

표 2. 지역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과 주요 교육훈련기관(1순위)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전체	1.5	21.4	15.5	4.3	4.2	4.0	25.0	25.1	0.5	
지역	서울	1.8	20.7	13.5	3.5	3.9	2.6	21.2	34.2	0.3
	부산	1.2	27.5	17.6	1.8	3.8	4.3	20.9	23.8	0.3
	대구	1.6	18.2	22.6	5.8	3.3	3.2	31.0	15.4	0.7
	인천	3.0	16.5	10.8	4.4	2.8	4.2	17.1	44.3	0.0
	광주	2.4	20.1	23.0	3.6	2.8	1.4	24.5	24.1	0.5
	대전	1.9	37.2	10.5	3.1	3.5	5.9	25.3	14.0	0.5
	울산	1.0	12.7	22.4	9.2	6.5	8.6	29.1	11.5	0.0
	경기	1.4	22.1	15.8	4.6	4.3	5.5	29.5	17.9	0.4

<표 계속>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지역	강원	1.1	20.7	17.0	4.3	7.2	4.6	32.8	13.5	0.0
	충북	1.3	25.8	9.4	8.8	4.1	4.3	34.2	12.3	1.2
	충남	0.9	16.6	13.7	4.3	4.4	6.0	39.6	15.5	0.0
	전북	1.3	15.2	19.0	6.0	4.8	2.3	25.2	27.0	0.6
	전남	1.0	21.8	14.8	6.9	7.6	4.0	26.6	18.0	0.3
	경북	1.0	24.1	23.5	4.6	7.2	4.8	18.9	16.7	0.4
	경남	1.1	21.8	16.9	3.8	5.2	3.5	25.7	18.9	4.2
	제주	1.1	22.2	5.1	1.5	9.6	3.2	27.7	30.8	0.0

주: 1)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수치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가운데 해당 기관을 1순위로 응답한 이들의 비중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 교육훈련 유형은 이론교육(41.4%), 실습교육(32.8%), 직무소양교육(17.2%) 순으로 나타남.**

- 인적 속성별 유익한 직업교육(훈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 여성 훈련 참여자 모두에서 이론교육, 실습교육, 직무소양 교육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실습교육이 유익하였다는 비중(37.3%)이, 남성의 경우 직무소양교육이 유익하였다는 비중(20.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론교육이 가장 유익하였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대졸 44.6%, 중졸 이하 30.8%), 학력이 낮을수록 실습교육이 가장 유익하였다는 참여자의 비중(중졸 이하 41.0%, 대졸 25.5%)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상태별 가장 유익한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집단 모두에서 이론교육, 실습교육, 직무교육 순으로 나타남.
 - 실업자의 경우, 도움이 된 직업교육(훈련)이 없었다고 답한 비중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가장 유익했던 직업교육(훈련)- 15세 이상 인구, 인적 속성별 현황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전체		1.5	41.4	32.8	4.4	17.2	0.1	4.1
성	남자	1.4	41.3	27.5	5.9	20.6	0.0	4.7
	여자	1.6	41.5	37.3	3.2	14.4	0.1	3.7
연령	15~29세	2.5	45.9	34.8	5.0	10.2	0.0	4.1
	30대	2.0	39.2	31.8	4.2	21.4	0.1	3.4
	40대	1.4	38.6	33.8	3.9	18.9	0.1	4.7
	50대	1.0	37.4	29.0	4.3	25.5	0.0	3.9
	60세 이상	0.4	38.9	28.8	3.2	22.7	0.0	6.4
학력	중졸 이하	0.4	30.8	41.0	5.9	18.0	0.0	4.3
	고졸	1.5	39.9	38.2	4.1	13.9	0.0	4.1
	전문대졸	2.5	42.6	32.9	4.9	17.0	0.1	2.4
	대졸 이상	2.3	44.6	25.5	4.2	20.6	0.1	5.0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1.4	35.9	30.0	5.1	25.8	0.1	3.1
	실업자	7.9	45.1	31.7	4.8	9.9	0.0	8.4
	비경활	1.3	49.7	38.0	3.1	4.7	0.0	4.5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지역별 가장 도움이 된 직업교육(훈련) 유형을 보면 교육훈련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이론교육(40.9%), 직무소양교육(26.1%), 실습교육(25.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 교육훈련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북, 충북, 전남의 경우 이론교육이 가장 유익하였다는 참여자 비중이 각각 57.6%, 54.1%, 48.1%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충남과 울산의 경우 실습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각각

47.3%, 44.4%

- 인천, 서울의 경우 직무소양교육의 비중이 각각 26.1%, 22.7%로 높게 나타남.
- 인천의 경우, 직무소양교육 비중이 실습교육 비중보다 약간 높은 것이 특징

표 4. 가장 유익했던 직업교육(훈련)- 15세 이상 인구, 지역별 현황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전체	1.5	41.4	32.8	4.4	17.2	0.1	4.1	
지역	서울	1.8	36.8	30.8	6.2	22.7	0.0	3.6
	부산	1.2	40.1	33.8	3.6	14.0	0.0	8.6
	대구	1.6	43.5	38.4	2.7	9.3	0.0	6.1
	인천	3.0	40.9	25.2	3.8	26.1	0.0	4.0
	광주	2.4	36.6	35.5	5.5	19.4	0.0	3.1
	대전	1.9	45.4	38.9	2.3	9.9	0.0	3.6
	울산	1.0	29.0	44.4	11.6	8.6	0.0	6.5
	경기	1.4	44.7	31.9	3.2	16.8	0.1	3.3
	강원	1.1	46.3	35.9	2.1	12.3	0.0	3.4
	충북	1.3	54.1	39.0	0.6	5.1	0.0	1.2
	충남	0.9	38.9	47.3	9.3	3.5	0.0	1.1
	전북	1.3	57.6	19.6	3.1	15.2	0.0	4.6
	전남	1.0	48.1	32.4	5.1	8.8	0.3	5.4
	경북	1.0	45.1	39.9	4.4	10.3	0.0	0.2
	경남	1.1	32.1	37.7	4.1	16.8	0.4	8.9
제주	1.1	30.3	30.2	12.3	16.8	0.0	10.4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 실업자

□ 실업자 중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비중은 연간 7.9%, 주된 직업교육(훈련)기관(1순위)은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37.1%, 사설학원 30.6% 순

○ 실업자의 인적 속성별 참여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7.4%)보다 여성(8.6%) 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15~29세(9.3%), 50대(8.4%), 30대(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10.3%), 전문대졸(8.6%), 고졸(6.9%), 중졸 이하(3.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 경험 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실업자(7.5%)보다 경험이 없는 실업자(10.0%)의 참여 비중이 높음. 근로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에서는 수입 목적의 일을 그만 둔 시기가 1년 미만인 실업자(10.2%)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실업자의 주된 교육훈련기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주된 직업교육(훈련)기관(1순위)은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37.1%, 사설학원 30.6%,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19.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층의 경우 사설학원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실업자의 경우 주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공단체 운영 훈련 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75.0%). 전문대졸의 경우 사설학원(34.7%), 공공단체 훈련기관(30.4%) 순으로, 대졸 실업자의 경우 공공단체 훈련기관(34.9%), 사설학원(3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 경험 유무별로는, 근로 경험이 없는 실업자의 경우 사설학원(63.0%),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1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데 비해, 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42.3%), 사설학원(23.3%)의 순으로 나타남.
 - 근로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 일을 그만 둔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이 주된 기관이라는 비중(46.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28.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실업자의 인적 속성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과 주요 교육훈련기관(1순위)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전체		7.9	37.1	19.5	3.7	2.9	0.9	30.6	4.9	0.4	
성	남자	7.4	35.9	18.8	5.6	3.7	1.2	28.4	6.1	0.2	
	여자	8.6	38.6	20.4	1.1	1.9	0.6	33.4	3.3	0.7	
연령	15~29세	9.3	25.8	17.3	2.9	4.6	0.3	43.5	5.8	0.0	
	30대	7.7	41.6	18.2	4.9	1.1	0.5	26.4	5.4	1.9	
	40대	5.0	48.7	29.5	3.7	1.8	3.2	9.9	3.3	0.0	
	50대	8.4	54.3	22.0	0.2	1.4	2.3	16.9	2.9	0.0	
	60세 이상	6.2	54.9	15.9	18.0	2.1	0.0	6.3	2.9	0.0	
학력	중졸 이하	3.1	75.0	13.9	0.0	0.0	0.0	7.9	3.2	0.0	
	고졸	6.9	38.8	21.9	2.1	1.0	0.4	29.2	6.5	0.0	
	전문대졸	8.6	30.4	19.2	4.8	5.6	1.2	34.7	4.1	0.0	
	대졸 이상	10.3	34.9	18.0	5.0	3.7	1.4	32.1	4.0	1.0	
근로 경험*	그만 둔 시기	없음	10.0	14.0	9.8	6.9	3.2	0.0	63.0	3.3	0.0
		있음	7.5	42.3	21.7	3.0	2.9	1.1	23.3	5.3	0.5
		6개월미만	6.8	46.1	18.8	5.0	3.0	1.0	18.9	6.2	1.0
		1년 미만	10.2	40.2	16.5	0.9	0.0	0.0	32.3	10.2	0.0
		1년 이상	7.8	37.4	28.3	0.7	3.9	1.9	26.1	1.8	0.0

주: 1)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수치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가운데 해당 기관을 1순위로 응답한 이들의 비중임.
 3) *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 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실업자의 취업 목적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15.5%,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5.0%

○ 실업자의 취업 목적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충북 15.5%, 제주 13.0%, 대전 12.2%, 광주 1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 실업자의 주된 교육훈련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실업자의 교육훈련 참여 비중이 높은 충북과 대전의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비중이 각각 59.8%, 73.5%로 높게 나타남.
- 전북과 제주 지역의 경우 공공단체 운영 훈련법인의 비중이 각각 9.0%,

15.2%로 현저하게 낮고 반면에 사설학원의 비중이 각각 55.2%, 75.3%로 현저하게 높음.

- 15세 이상 인구 중 교육훈련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의 경우 실업자 참여 비중(5.4%)은 낮은 편에 속함.

표 6. 실업자의 지역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과 주요 교육훈련기관(1순위)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전체	7.9	37.1	19.5	3.7	2.9	0.9	30.6	4.9	0.4	
지역	서울	6.2	36.5	16.2	4.1	2.0	0.0	36.0	5.2	0.0
	부산	5.5	43.7	27.4	0.0	3.8	5.5	15.5	4.0	0.0
	대구	9.3	21.7	31.4	0.0	0.0	0.0	46.9	0.0	0.0
	인천	5.4	28.5	24.9	2.7	3.9	2.6	37.5	0.0	0.0
	광주	11.9	38.0	26.7	0.0	0.0	0.0	27.0	8.3	0.0
	대전	12.2	73.5	19.7	0.0	0.0	0.0	6.8	0.0	0.0
	울산	11.1	26.8	27.4	14.7	12.7	2.8	13.5	2.1	0.0
	경기	10.2	36.2	18.7	6.3	4.6	1.1	25.1	6.6	1.3
	강원	5.0	29.9	44.3	0.0	8.0	0.0	7.5	10.3	0.0
	충북	15.5	59.8	29.2	3.2	0.0	0.8	7.0	0.0	0.0
	충남	6.7	33.8	1.6	0.0	4.8	0.0	59.9	0.0	0.0
	전북	7.6	9.0	25.3	7.8	0.0	2.7	55.2	0.0	0.0
	전남	5.4	38.3	9.7	6.8	5.9	0.0	39.3	0.0	0.0
	경북	8.1	34.5	9.9	1.3	0.0	0.0	35.1	19.1	0.0
	경남	5.7	42.9	10.0	0.0	0.0	0.0	44.3	2.9	0.0
	제주	13.0	15.2	0.0	0.0	9.5	0.0	75.3	0.0	0.0

주: 1)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수치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가운데 해당 기관을 1순위로 응답한 이들의 비중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 교육훈련 유형은 이론교육(45.1%), 실습교육(31.7%), 직무소양교육(9.9%) 순으로 나타남.**

- 인적 속성별 유익한 직업교육(훈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실업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의 실업자 집단에서 이론교육, 실습교육, 직무소양교육 순으로 가장 유익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의 경우 이론교육 35.6%, 직무소양교육 32.7%, 실습교육 6.8%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 실업자의 경우 이론교육(37.3%)보다 실습교육(41.8%)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대졸 이상 실업자의 경우 직무소양교육(12.2%)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 경험 여부별 유익한 교육훈련 유형은, 근로 경험이 없는 실업자의 경우 이론교육 60.6%, 실습교육 15.8%, 현장교육 11.9% 순으로 나타남. 수입 목적의 일을 그만 둔 시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업자의 경우 실습교육 37.2%, 직무소양교육 31.1%, 이론교육 19.8% 순으로 유익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7. 가장 유익했던 직업교육(훈련)- 실업자, 인적 속성별 현황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전체		7.9	45.1	31.7	4.8	9.9	0.0	8.4
성	남자	7.4	45.3	24.9	5.3	14.4	0.0	10.1
	여자	8.6	44.9	40.9	4.2	4.0	0.0	6.1
연령	15~29세	9.3	51.8	30.3	6.9	3.7	0.0	7.4
	30대	7.7	37.8	33.4	5.0	17.4	0.0	6.4
	40대	5.0	42.4	39.4	3.5	1.1	0.0	13.5
	50대	8.4	38.4	35.5	0.0	20.4	0.0	5.7
	60세 이상	6.2	35.6	6.8	0.0	32.7	0.0	25.0

<표 계속>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학력	중졸 이하	3.1	72.1	12.1	0.0	4.2	0.0	11.7	
	고졸	6.9	37.3	41.8	5.7	7.6	0.0	7.7	
	전문대졸	8.6	50.5	28.8	6.0	10.9	0.0	3.9	
	대졸 이상	10.3	47.2	25.9	4.0	12.2	0.0	10.7	
근로 경험	그만 둔 시기	없음	10.0	60.6	15.8	11.9	7.1	0.0	4.7
		있음	7.5	41.6	35.4	3.2	10.6	0.0	9.2
		6개월미만	6.8	45.3	36.5	2.6	8.4	0.0	7.3
		1년 미만	10.2	19.8	37.2	5.6	31.1	0.0	6.3
		1년 이상	7.8	45.3	32.8	3.2	5.1	0.0	13.5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지역별로 실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 직업교육(훈련) 유형을 보면 교육 훈련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충북의 경우, 이론교육(77.5%), 실습교육(20.4%) 순으로 나타남.

-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 교육훈련 유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울산의 경우 실습교육 53.6%, 이론교육 19.4%, 현장교육 12.8% 순으로 유익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습교육과 현장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론교육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
 - 충북과 인천의 경우 이론교육이 가장 유익했다는 비중이 각각 77.5%, 64.4%로 높게 나타남.
 - 강원, 광주의 경우 실습교육이 가장 유익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각각 59.9%, 58.0%

표 8. 가장 유의했던 직업교육(훈련)- 실업자, 지역별 현황

(단위: %)

2012. 4. ~ 2013. 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전체	7.9	45.1	31.7	4.8	9.9	0.0	8.4	
지역	서울	6.2	37.1	39.7	5.6	9.5	0.0	8.2
	부산	5.5	37.6	29.1	7.4	9.5	0.0	16.4
	대구	9.3	47.6	17.6	0.0	0.0	0.0	34.8
	인천	5.4	64.4	32.9	0.0	0.0	0.0	2.7
	광주	11.9	26.5	58.0	9.6	0.0	0.0	5.9
	대전	12.2	44.1	22.7	0.0	33.3	0.0	0.0
	울산	11.1	19.4	53.6	12.8	7.3	0.0	6.9
	경기	10.2	51.2	23.7	7.3	12.3	0.0	5.5
	강원	5.0	22.8	59.9	2.3	7.1	0.0	8.0
	충북	15.5	77.5	20.4	0.0	0.0	0.0	2.1
	충남	6.7	18.9	77.6	0.0	3.5	0.0	0.0
	전북	7.6	47.1	25.0	2.4	0.0	0.0	25.5
	전남	5.4	52.0	12.2	2.5	3.5	0.0	29.7
	경북	8.1	48.1	33.7	0.8	17.5	0.0	0.0
	경남	5.7	44.7	18.6	0.0	26.5	0.0	10.2
	제주	13.0	57.7	32.8	9.5	0.0	0.0	0.0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3. 경력 단절 여성(15~54세)

□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 및 비중

- 경력 단절 여성이란 15~54세 기혼(이혼, 사별 포함)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비취업(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여성을 의미
- 경력 단절 여성은 총 195만 5천여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4.7%, 15~54세 비취업 여성 중 4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경력 단절 여성 규모 및 비중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수	비중
15세 이상 인구	42,002	100.0
15~54세 비취업 여성	4,063	100.0
경력 단절 여성	1,955	4.7* 48.1**

주: 1) 경력 단절 여성: 15~54세 기혼(이혼, 사별 포함)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비취업(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여성
 2) * 15세 이상 인구 전체 중 경력 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 15~54세 비취업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경력 단절 여성 중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4%

-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적 속성별 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는 30대(1.7%)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 50~54세(0.4%)의 비율이 가장 낮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1.7%, 대졸 이상 1.5%, 고졸 이상 1.3%, 중졸 이하 0.6%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조사한 결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26.7%, 공공단체 운영 훈련 기관 24.6%, 평생교육시설 19.4% 순으로 나타남.
 - 경력 단절 여성의 연령별 주된 교육훈련기관은 30대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29.1%,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24.0%, 사설학원 17.7% 순으로 나타남.
 - 40대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30.2%,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27.9%,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18.2%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37.9%,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27.3% 순으로, 고졸 여성의 경우 공공단체

- 운영 훈련기관 40.0%,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24.3% 순으로 나타남.
- 전문대졸 여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31.3%, 사설학원 22.6% 순, 대졸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31.4%,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26.8% 순으로 나타남.

표 10.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적 속성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과 주요 교육훈련기관(1순위)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사업주 단체	기타	
전체	1.4	24.6	26.7	3.4	5.8	19.4	14.9	4.2	1.1	
연령	15~29세	0.6	7.1	42.0	6.7	5.7	3.3	21.1	12.3	1.8
	30대	1.7	24.0	29.1	2.9	6.0	15.7	17.7	3.6	1.1
	40대	1.5	27.9	18.2	4.3	5.7	30.2	8.6	4.1	1.0
	50~54세	0.4	33.8	32.3	0.0	3.6	19.8	0.2	10.4	0.0
학력	중졸 이하	0.6	27.3	0.0	18.6	0.0	16.1	0.0	37.9	0.0
	고졸	1.3	40.0	24.3	2.7	6.3	11.8	10.6	3.7	0.8
	전문대졸	1.7	18.1	31.3	1.0	5.5	12.7	22.6	8.9	0.0
	대졸 이상	1.5	13.8	26.8	5.1	5.9	31.4	14.4	0.5	2.2

주: 1)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수치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가운데 해당 기관을 1순위로 응답한 이들의 비중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경력 단절 여성 중 취업 목적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와 경북으로 각각 2.7%

- 참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0.5%에 그침.
- 지역별 경력 단절 여성의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충북, 서울, 부산, 강원은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이 각각 49.6%, 46.6%, 43.8%, 43.5%로 높게 나타남.

- 대구와 경남, 광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법인이 각각 66.4%, 51.7%, 48.9%로 높게 나타남.
- 울산, 충남, 경기도는 평생교육시설이 40.2%, 36.1%, 35.1%로 높게 나타남.

표 11. 경력 단절 여성의 지역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과 주요 교육훈련기관(1순위)

(단위: %)

2012. 4. ~ 2013. 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1순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직능개발 훈련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전체	1.4	24.6	26.7	3.4	5.8	19.4	14.9	4.2	1.1	
지역	서울	1.4	46.6	24.8	4.7	4.1	7.4	8.3	4.1	0.0
	부산	1.6	43.8	22.6	0.0	7.3	12.7	13.6	0.0	0.0
	대구	1.5	17.0	66.4	8.3	0.0	8.4	0.0	0.0	0.0
	인천	1.6	8.9	0.0	0.0	9.0	27.1	45.8	9.2	0.0
	광주	2.7	19.4	48.9	0.0	0.0	0.0	15.3	16.4	0.0
	대전	1.6	29.2	25.1	0.0	0.0	20.3	25.4	0.0	0.0
	울산	0.8	0.0	0.0	36.0	23.7	40.2	0.0	0.0	0.0
	경기	1.2	19.6	20.9	1.4	2.5	35.1	12.3	3.9	4.3
	강원	1.6	43.5	3.5	0.0	26.1	6.3	20.6	0.0	0.0
	충북	1.7	49.6	0.0	13.4	0.0	8.8	28.3	0.0	0.0
	충남	1.6	9.7	29.1	7.4	2.7	36.1	10.7	4.4	0.0
	전북	1.2	33.5	25.4	0.0	39.0	0.0	2.1	0.0	0.0
	전남	1.3	19.5	27.9	2.8	2.8	6.3	18.2	22.6	0.0
	경북	2.7	6.2	41.5	0.0	12.7	25.6	11.8	2.3	0.0
	경남	0.9	10.3	51.7	5.6	0.0	5.6	26.7	0.0	0.0
	제주	0.5	0.0	0.0	0.0	100.0	0.0	0.0	0.0	0.0

주: 1)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수치는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가운데 해당 기관을 1순위로 응답한 이들의 비중임.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경력 단절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된 직업교육(훈련) 유형은 실습교육 47.9%, 이론교육 37.6% 순으로 나타남.**

- 인적 속성별 유익한 직업교육(훈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실습교육이 가장 유익했던 것으로 나타남.
 - 50~54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직무소양교육이 가장 유익했다는 참여자 비중이 27.6%로 타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및 고졸 경력 단절 여성 집단에서는 유익한 교육훈련으로서 실습교육보다 이론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전문대졸 이상 여성 집단에서는 실습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2. 가장 유익했던 직업교육(훈련)- 경력 단절 여성, 인적 속성별 현황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전체		1.4	37.6	47.9	2.6	6.0	0.0	5.9
연령	15~29세	0.6	26.1	56.3	1.7	15.9	0.0	0.0
	30대	1.7	39.6	47.4	2.8	6.2	0.0	4.0
	40대	1.5	35.3	48.5	2.3	2.3	0.0	11.5
	50~54세	0.4	30.2	37.6	4.7	27.6	0.0	0.0
학력	중졸 이하	0.6	52.5	31.3	0.0	0.0	0.0	16.1
	고졸	1.3	47.2	39.8	0.3	7.7	0.0	5.0
	전문대졸	1.7	30.3	49.9	5.4	8.4	0.0	6.0
	대졸 이상	1.5	32.7	55.1	3.2	2.9	0.0	6.3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지역별 가장 유익한 직업교육(훈련) 유형을 보면 전남, 인천의 경우 이론 교육의 비중이 각각 67.9%, 61.3%로 높게 나타남.**

- 충북과 경남의 경우 실습교육의 비중이 각각 81.7%, 68.9%로 높게 나타남.

- 울산과 광주의 경우에는 현장교육(인턴)의 비중이 19.6%, 14.6%로 높게 나타남. 울산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 집단에서 가장 도움이 된 직업교육(훈련)으로서 직무소양교육의 비중(33.2%)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 또한 눈에 띈다.

표 13. 가장 유의했던 직업교육(훈련)- 경력 단절 여성, 지역별 현황

(단위: %)

2012.4. ~ 2013.4.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참여 비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직업교육(훈련)					도움이 된 훈련 없음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인턴)	직무소양 교육	기타		
전체	1.4	37.6	47.9	2.6	6.0	0.0	5.9	
지역	서울	1.4	28.4	48.8	4.7	8.7	0.0	9.3
	부산	1.6	30.5	48.5	0.0	6.7	0.0	14.3
	대구	1.5	42.0	47.8	0.0	10.2	0.0	0.0
	인천	1.6	61.3	38.8	0.0	0.0	0.0	0.0
	광주	2.7	23.0	46.9	14.6	8.6	0.0	6.9
	대전	1.6	56.2	43.8	0.0	0.0	0.0	0.0
	울산	0.8	23.5	23.7	19.6	33.2	0.0	0.0
	경기	1.2	33.1	51.1	0.0	4.4	0.0	11.3
	강원	1.6	40.0	56.5	3.5	0.0	0.0	0.0
	충북	1.7	13.8	81.7	0.0	0.0	0.0	4.5
	충남	1.6	50.4	47.9	1.7	0.0	0.0	0.0
	전북	1.2	43.0	46.6	0.0	10.4	0.0	0.0
	전남	1.3	67.9	20.8	4.8	6.5	0.0	0.0
	경북	2.7	54.6	34.7	0.0	10.7	0.0	0.0
	경남	0.9	31.1	68.9	0.0	0.0	0.0	0.0
제주	0.5	0.0	0.0	100.0	0.0	0.0	0.0	

자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 훈련과정 신청 및 심사 결과

□ 2013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 훈련과정 심사 결과 적합률이 37.7%로 나타남.

- 총 12,667개의 훈련과정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4,772개 과정이 적합 판정을 받음.
- 2010년 이후 심사 신청 과정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3년에 다소 증가 하였음. 그러나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적합률의 경우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에 크게 떨어짐.

표 1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 훈련과정 심사 결과

(단위: 개, %)

구분	심사 (A)	판정				부적합 (F)	
		적합 판정 (B=C+D)			적합률 (B/A)		
		적합 (C)	조건부 적합 ¹⁾ (D)				
2008년	866	529	508	21	61.1	337	
2009년	상반기	9,456	4,280	3,465	815	45.3	5,176
	하반기	26,435	13,668	11,838	1,830	51.7	12,767
2010년	21,827	7,645	5,656	1,989	35.0	14,182	
2011년	14,654	6,810	4,526	2,284	46.5	7,844	
2012년	9,598	5,008	611	4,396	52.2	4,591	
2013년	12,667	4,772	4,179	593	37.7	7,895	

주: 1) 조건부 적합의 경우 2011년까지는 비용 조건부 적합만 해당되었으나, 2012년부터 비용 조건부 적합 외에 부적합 사유 치유 조건부 적합이 포함됨.

2) 일반과정 심사 결과만 제시

3) 이의 신청 후의 승인 결과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자료(2014).

□ 2013년 심사 훈련과정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3,363개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음식서비스 관련직(1,853개),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1,494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397개)의 순임.
-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084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755개,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673개, 음식서비스 관련직 627개 등의 순임.

표 15. 훈련 직종별(KECO 중분류) 적합 훈련과정 심사 결과

(단위: 개)

KECO 중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계	14,654	4,526	2,284	7,844	9,598	611	4,396	4,591	12,667	4,179	593	7,895
1	6	1	-	5	2	-	-	2	-	-	-	-
2	3,881	1,489	553	1,839	2,287	178	739	1,370	3,363	957	127	2,279
3	3	-	-	3	66	11	44	11	23	12	1	10
4	285	29	26	230	131	-	35	96	138	10	1	127
5	16	2	6	8	6	-	4	2	20	5	1	14
6	434	150	57	227	412	51	277	84	420	134	6	280
7	453	191	40	222	218	27	107	84	253	134	3	116
8	2,321	645	420	1,256	1,096	88	626	382	1,397	730	25	642
9	55	17	13	25	60	-	48	12	83	31	4	48
10	166	27	14	125	107	4	39	64	130	38	3	89
11	16	3	-	13	7	-	-	7	16	0	0	16
12	1,677	155	183	1,339	1,172	22	332	818	1,494	593	80	821
13	1,795	478	248	1,069	1,268	10	440	818	1,853	447	180	1,226
14	251	62	42	147	274	8	164	102	354	124	17	213
15	215	116	60	39	339	56	253	30	354	136	22	196
16	149	67	28	54	147	1	140	6	187	64	13	110

<표 계속>

KECO 중분류: 1. 관리직, 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 금융·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6. 보건 및 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KECO 중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17	15	4	4	7	13	2	9	2	8	2	0	6
18	437	90	187	160	398	11	202	185	618	205	20	393
19	328	188	48	92	337	44	232	61	414	52	7	355
20	848	417	158	273	394	51	232	111	489	150	35	304
21	650	195	102	353	450	21	214	215	491	186	21	284
22	554	156	78	320	344	21	213	110	455	149	24	282
23	99	44	17	38	70	5	46	19	107	20	3	8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4).

□ 2013년 훈련 직종별 적합률은 금융·보험 관련직이 56.5%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54.2%),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54.0%),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45.0%) 등의 순임.
- 경영·회계·사무 관련 훈련과정의 경우, 심사 신청 과정 중 26.5%, 적합 판정 과정 중 2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적합률은 32.2%로 평균 적합률(37.7%)보다 낮음.

표 16. 훈련 직종별(KECO 중분류) 적합 훈련과정 비중 및 적합률

(단위: %)

KECO 중분류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6.5	52.2	37.7
1	0.0	0.0	0.0	0.0	0.0	0.0	16.7	0.0	0.0
2	26.5	23.8	26.5	30.0	18.3	22.7	52.6	40.1	32.2
3	0.0	0.7	0.2	0.0	1.1	0.3	0.0	83.3	56.5
4	1.9	1.4	1.1	0.8	0.7	0.2	19.3	26.7	8.0
5	0.1	0.1	0.2	0.1	0.1	0.1	50.0	66.7	30.0
6	3.0	4.3	3.3	3.0	6.6	2.9	47.7	79.6	33.3
7	3.1	2.3	2.0	3.4	2.7	2.9	51.0	61.5	54.2

<표 계속>

KECO 중분류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8	15.8	11.4	11.0	15.6	14.3	15.8	45.9	65.1	54.0
9	0.4	0.6	0.7	0.4	1.0	0.7	54.5	80.0	42.2
10	1.1	1.1	1.0	0.6	0.9	0.9	24.7	40.2	31.5
11	0.1	0.1	0.1	0.0	0.0	0.0	18.8	0.0	0.0
12	11.4	12.2	11.8	5.0	7.1	14.1	20.2	30.2	45.0
13	12.2	13.2	14.6	10.7	9.0	13.1	40.4	35.5	33.8
14	1.7	2.9	2.8	1.5	3.4	3.0	41.4	62.8	39.8
15	1.5	3.5	2.8	2.6	6.2	3.3	81.9	91.2	44.6
16	1.0	1.5	1.5	1.4	2.8	1.6	63.8	95.9	41.2
17	0.1	0.1	0.1	0.1	0.2	0.0	53.3	84.6	25.0
18	3.0	4.1	4.9	4.1	4.3	4.7	63.4	53.5	36.4
19	2.2	3.5	3.3	3.5	5.5	1.2	72.0	81.9	14.3
20	5.8	4.1	3.9	8.4	5.7	3.9	67.8	71.8	37.8
21	4.4	4.7	3.9	4.4	4.7	4.3	45.7	52.2	42.2
22	3.8	3.6	3.6	3.4	4.7	3.6	42.2	68.0	38.0
23	0.7	0.7	0.8	0.9	1.0	0.5	61.6	72.9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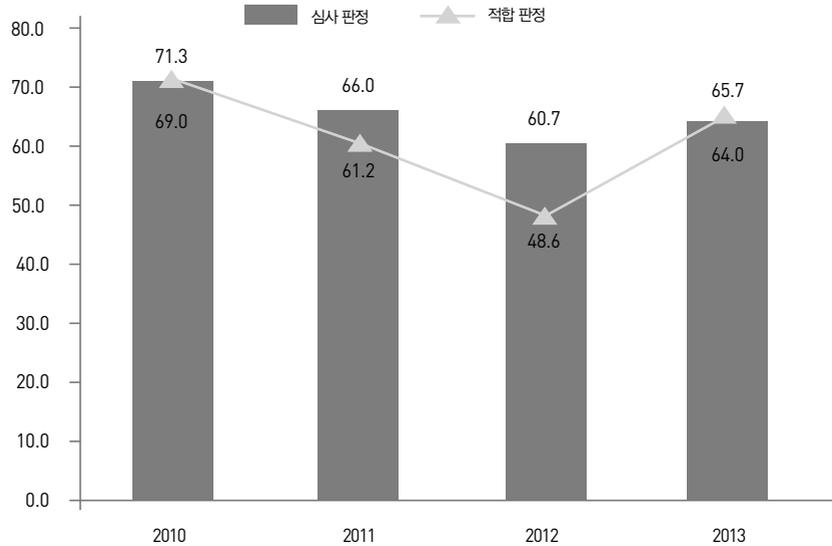
주: 1) 전체: 심사 신청 훈련과정 전체 중 직종별 과정 비중
 2) 적합 판정: 적합 판정(적합+조건부 적합)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종별 비중
 3) 적합률: 해당 직종별 적합률이며, 직종별 심사 신청 훈련과정 중 적합+조건부 적합 과정의 비중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4).

□ 4대 훈련 직종이 심사 신청 과정 및 적합 훈련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3년에 증가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4대 직종이 전체 심사 신청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9.0%에서 2011년 66.0%, 2012년 60.7%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 64.0%로 전년도 대비 3.3%p 증가
-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71.3%에서 61.2%(2011년), 48.6%(2012년)로 감소하다 2013년에 65.7%로 전년도 대비 17.1%p 증가

그림 1. 4대 훈련 직종의 심사 신청 및 적합 판정 훈련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4대 훈련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과 음식서비스 관련직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4).

□ 지역별 적합 훈련과정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이 심사 신청 훈련과정 3,124개(24.7%), 적합 판정 훈련과정 1,224개(25.6%)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경기도가 심사 과정 2,067개(16.3%), 적합 판정 과정 839개 (17.6%)로 많음.
- 적합률의 경우 경북이 4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44.7%)과 경기 (40.6%) 등의 순으로 높음.
- 적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27.8%임

표 17. 지역별 적합 훈련과정 심사 결과

(단위: 개)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계	14,654	4,526	2,284	7,844	9,598	611	4,396	4,591	12,667	4,179	593	7,895
서울	3,996	1,185	794	2,017	2,361	208	1,129	1,024	3,124	1,078	146	1,900
부산	1,303	441	174	688	844	44	424	376	1,175	374	26	775
대구	1,227	406	155	666	832	59	377	396	1,134	358	48	728
인천	672	244	132	296	454	53	176	225	628	201	18	409
광주	1,088	271	153	664	749	56	287	406	891	271	28	592
대전	586	173	96	317	473	28	209	236	623	214	22	387
울산	281	75	29	177	178	9	98	71	237	84	22	131
경기	2,401	773	398	1,230	1,563	52	781	730	2,067	727	112	1,228
강원	225	72	22	131	171	4	75	92	229	87	4	138
충북	302	91	33	178	232	11	101	120	310	96	14	200
충남	323	104	40	179	184	19	71	94	264	84	14	166
전북	543	172	64	307	446	10	205	231	531	152	21	358
전남	355	115	32	208	234	14	88	132	288	88	15	185
경북	367	97	58	212	234	10	95	129	359	110	59	190
경남	799	265	87	447	554	32	257	265	692	227	40	425
제주	186	42	17	127	89	2	23	64	115	28	4	8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4).

표 18. 지역별 적합 훈련과정 비중 및 적합률

(단위: %)

지역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6.5	52.2	37.7
서울	27.3	24.6	24.7	29.1	26.7	25.6	49.5	56.6	39.2
부산	8.9	8.8	9.3	9.0	9.3	8.4	47.2	55.5	34.0
대구	8.4	8.7	9.0	8.2	8.7	8.5	45.7	52.4	35.8
인천	4.6	4.7	5.0	5.5	4.6	4.6	56.0	50.4	34.9
광주	7.4	7.8	7.0	6.2	6.9	6.3	39.0	45.8	33.6

<표 계속>

지역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전	4.0	4.9	4.9	4.0	4.7	4.9	45.9	50.1	37.9
울산	1.9	1.9	1.9	1.5	2.1	2.2	37.0	60.1	44.7
경기	16.4	16.3	16.3	17.2	16.6	17.6	48.8	53.3	40.6
강원	1.5	1.8	1.8	1.4	1.6	1.9	41.8	46.2	39.7
충북	2.1	2.4	2.5	1.8	2.2	2.3	41.1	48.3	35.5
충남	2.2	1.9	2.1	2.1	1.8	2.1	44.6	48.9	37.1
전북	3.7	4.6	4.2	3.5	4.3	3.6	43.5	48.2	32.6
전남	2.4	2.4	2.3	2.2	2.0	2.2	41.4	43.6	35.8
경북	2.5	2.4	2.8	2.3	2.1	3.5	42.2	44.9	47.1
경남	5.5	5.8	5.5	5.2	5.8	5.6	44.1	52.2	38.6
제주	1.3	0.9	0.9	0.9	0.5	0.7	31.7	28.1	27.8

주: 1) 전체: 심사 신청 훈련과정 전체 중 지역별 비중
 2) 적합 판정: 적합 판정(적합+조건부 적합)을 받은 훈련과정의 지역별 비중
 3) 적합률: 해당 지역별 적합률로, 지역별 심사 신청 훈련과정 중 적합+조건부 적합 과정의 비중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4).

◆ 고용보험 동향(2013년 12월)

□ 201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75만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

○ 피보험자는 1,1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함.

표 19.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2012.12	2013.11	2013.12	2013.12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사업장	1,610,713	1,780,467	1,747,928	137,215	8.5	-32,539	-1.8
피보험자(순수)	11,152,354	11,616,488	11,571,213	418,859	3.8	-45,275	-0.4
- 남자	6,784,700	6,989,713	6,971,699	186,999	2.8	-18,014	-0.3
- 여자	4,367,654	4,626,775	4,599,514	231,860	5.3	-27,261	-0.6
취득자	387,164	482,297	398,592	11,428	3.0	-83,705	-17.4
상실자	407,024	415,177	437,513	30,489	7.5	22,336	5.4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 근로자 대상이며, 일용 근로자는 제외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2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9만 7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전년 동월 대비 60.6%, 유급휴가훈련이 26.5%,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1.8% 증가한 반면, 재직자 및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7%, 20.2% 감소함.

표 20.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건 수					2013, 12월 누계
		2012, 12	2013, 11	2013, 12		2013, 12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95,239	105,914	97,250	2.1	-8.2	1,194,021
직업능력개발훈련		22,481	30,751	36,094	60.6	17.4	299,275
유급휴가훈련		471	312	596	26.5	91.0	4,517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14,801	17,581	15,064	1.8	-14.3	212,119
내일 배움 카드제	재직자	1,841	1,233	1,074	-41.7	-12.9	18,090
	자영업자	0	37	27	-	-27.0	220
	실업자	55,645	56,000	44,395	-20.2	-20.7	659,800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1년 9월 이후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2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707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29.0%)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33.8%)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유급휴가훈련과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 47.0%, 24.4% 감소함.

표 21.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금 액						
	2012.12	2013.11	2013.12		2013. 12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64,889	61,360	70,712	9.0	15.2	634,127	
직업능력개발훈련	37,353	36,955	48,199	29.0	30.4	321,304	
유급휴가훈련	1,251	666	1,229	-1.8	84.5	9,471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3,091	4,451	4,135	33.8	-7.1	54,188	
내일 배움 카드제	재직자	1,708	1,151	905	-47.0	-21.4	17,959
	자영업자	-	6	6	-	-13.4	49
	실업자	21,486	18,130	16,239	-24.4	-10.4	231,155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1년 9월 이후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2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KOLIC

(작성: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